

12년 만에 부활한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지난 6월 25일 부산전시 컨벤션센터(BEXCO)에서 우리협회 건축사회원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건축사대회에서는 6월 24일 개최된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대회, 전국건축사 회화전을 시작으로 25일 대망의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식과 건설사업관리(CM) 세미나, 패션쇼, 건축사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문화상 열린우리당의장, 김우성 한나라당사무총장,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허남식 부산광역시시장 등 여러 내외 귀빈이 참석해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 했다. 개회식은 집행위원장이 박신욱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장의 인장으로 시작돼 각 시·도 건축사회장, 본 협회 고문·이사·감사와 내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장인 이철호 우리협회회장의 인장으로 대회분위기가 한층 고조돼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국 1만여 건축사는 21세기 건축문화발전에 스스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10만 예비건축사, 100만 건축가족의 생활과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장래가 보장되도록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 정책개발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그 첫번째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전문가의 위상이 바로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정비보완을, 둘째로 건축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 당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건축문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진정한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대가기준의 보장을, 셋째로 건축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건설업체의 설계검업논의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전체 명의로 발표했다.

또한, 선언문을 통해 건축문화 4대혁신 과제를 제안하며 제과제로서 건축문화와 미래산업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 등의 혁신을, 제2과제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배출·관리 등의 혁신을, 제3과제로서 독창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굴·보전·육성을 위한 혁신을, 제4과제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떻게 건축문화 혜택을 증진시켜 주느냐의 경쟁으로 사회가 전환되도록 혁신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울러, 이와 같은 혁신의 실천은 미래로 가져가야 할 국가산업의 한 분야로서 건축문화도 AT(Architecture Technology)산업으로 규정하고 건축 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육성 발전시켜 현 정부의 조직도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어 세계시장의 선진문화와 경쟁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어 벵스코 전시장 마당에서 열린 '건축사 만남의 광장' 행사에는 2005전국건축사대회에 참여했던 4천여 건축사와 동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삼삼오오 모여 가벼운 식사와 함께 마련된 행사에 동참했다.

'건축사 만남의 광장' 행사는 방송인 이상우씨의 사회로 연예인의 축하무대와 노래자랑, 디스코경연 등이 펼쳐졌으며, 행운의 경품 추첨행사에서는 자동차와 노트북 등 많은 경품들이 여러 건축사에게 증정됐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이철호 본 협회 회장은 '2005전국건축사대회'의 성공을 축하하며, 함께 한 건축사회원들과 만세 삼창으로 대회결과를 선포하며 12년 만에 개최된 '2005전국건축사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5전국건축사대회 입장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입장식에서 대회 주관을 맡은 박신욱 집행위원장이 부산 건축사회기와 함께 입장하면서 각 시·도건축사회기가 입장했고, 이어 본협회 임원진과 고문, 내빈이 입장했다. 끝으로 대회장인 이철호 회장이 입장한 뒤 대회가 입장, 박신욱 집행위원장이 대회를 이철호 회장에게 넘기자 대회장은 열기로 가득찼다.



이철호 대회장의 대회사 낭독

2005전국건축사대회 대회장을 맡은 이철호 우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건축사회원여러분들의 화합과 단합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경쟁력있는 건축, 21세기 건축문화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하고, "오늘 2005 전국건축사대회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 국민 속의 건축사를 선포하는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문화상 열린우리당 의장 축하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열린우리당 문화상 의장은 "참으로 감동의 물결이며, 건축사들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서두를 꺼내고,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는 세계 속의 한국을 디자인하는 첨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대회가 건축사 여러분의 위상과 긍지를 더욱 높이고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중흥을 가져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 축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대신하여 참석한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축사를 대독했는데 "건축사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는 바로 창조예술이며, 그것은 곧 훌륭한 문화자산이므로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고 격려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창작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축사

축사 낭독에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건축문화 선진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러한 축제가 건축문화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건축사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축환경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부산광역시 시장 축사

하남시 부산광역시 시장은 "오는 11월이면 2005 APEC 정상회의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 건축의 중요성과 상징성 그리고 도시 미관이 그 도시의 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시는 부산다운 건축 문화를 꽃피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축사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본 협회 한명수 이사의 건축문화 혁신대회 선언문 낭독

건축문화 혁신대회를 시작하며 본 협회 한명수 이사의 건축문화 혁신대회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선언문에서는 건축문화 4대혁신 과제를 제안하며, 건축문화와 미래산업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배출·관리, 독창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굴 보전·육성,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떻게 건축문화 혜택을 증진시켜 주느냐의 경쟁으로 사회가 전환되도록 혁신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영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건의문 낭독

최영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첫째,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전문가의 위상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정비보완할 것과 둘째, 건축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 당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건축문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진정한 공정가래를 위해 업무대기기준의 보장을 요망하고, 셋째, 건축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건설업체의 설계겸업논의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이철호 대회장에게 전달했다.





2005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

6월 25일 10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2005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에서는 50여 내외빈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호 대회장의 2005 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이 거행됐다.

이철호 대회장은 선포문에서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8,200여 건축사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건축사 최대의 행사로서 이번 대회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건설사업관리(CM)세미나

6월 25일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약 2시간여에 걸쳐 벅스코 강의실에서 개최된 협회주관 건설사업관리(CM)세미나는 좌석 500석을 가득 메웠고 준비한 600여부의 책자도 모자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제1주제는 'CM 그리고 건축사 업무영역의 확장'으로서 이학기 동아대학교 교수가 강의하였고, 제2주제는 'CM 적용사례'로서 도상의 ITM코퍼레이션 부사장이 강의했다.

건축사 만남의 광장

벅스코 제 1전시실에서 개최된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끝나자 건축사들은 벅스코 광장에 마련된 무대로 이동하여 방송인 이상용씨가 진행하는 건축사와 그 가족들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에 참여했다. 노래자랑과 연예인 축하쇼 및 여성 건축사 디스코 쇼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이철호 대회장의 성공적인 2005전국건축사대회 결과 선포와 경품 추첨이 이어져 회원들은 소형 자동차 등 많은 경품을 가지고 돌아갔다.

패션쇼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세정은 본 대회에 앞서 식전행사로 패션쇼를 준비했다. 이 패션쇼에는 2명의 남자건축사(노상철, 도무찬)회원과 3명의 여성건축사(김수연, 박영순, 이원영)회원이 함께 출연하여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 경기대회

6월 24일 12시 30분부터 부산 북구 구민운동장에서는 전국에서 약 11개팀, 300여회원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 경기대회가 개최됐다.

승부를 떠난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이었던 이번 축구대회에서는 울산건축사회 축구단이 우승했으며, 준우승에는 서울 광진구 축구단이 차지했다. 아울러 최우수선수상은 울산의 김진산 회원이, 최다득점상은 대회 중 4골을 넣은 울산의 신현중 회원에게 돌아갔다.



전국건축사 회화전

6월 24일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막과 함께 벅스코 3전시장에서 열린 전국건축사 회화전. 40여 건축사 회원의 작품 70여점이 전시되어 문화제 내내 관람객들이 줄을 이다. 특히 회화전에 참여한 건축사들의 평소 바쁜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내 화폭에 담은 그림 실력을 본 관람객들은 건축물이 그토록 아름다운 까닭을 알겠더라 감탄을 자아냈다.



2005전국건축사대회장 전경

2005전국건축사대회는 12년 만에 부활되어 지난 6월 25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우리협회 건축사회원 4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건축사대회에서는 6월 24일 개최된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 경기대회, 전국건축사 회화전을 시작으로 25일 대망의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식과 건설사업관리(CM) 세미나, 패션쇼, 건축사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005전국건축사대회 참석 내외빈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요 내외빈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설동훈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문화상 열린우리당 당의장, 김우성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의회 관계자, 김신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장, 이충협 동의과학대학 학장, 현대산업개발(주) 이경우부장, (주)삼우EMC 임재춘 전무이사, 중국상해시 감찰설계행업협회 황 지 비서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선 포 문

2005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8,200여 건축사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건축사 최대의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993년 이후 12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건축사의 위상과 자존심 회복을 통해 우리 건축문화의 중흥을 꾀하고자 하는 원대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에 걸맞게 해외의 유명 건축사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은 물론 건축사업수 수행에 필요한 세미나, 건축실용적 품·회화·자재전시회, 결식아동돕기 시·도대항 축구대회 및 건축을 건축 등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건축사 스스로의 성장과 건축문화 개혁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다짐하는 건축문화혁신 선언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사와 건축인들의 행사가 그치지 않고 범국민적인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대한 건축사 협회 회장 이 철 호
2005전국건축사대회 대회장

건 의 서

전국 1만여 건축사는 21세기 건축문화발전전에 스스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10만 예비건축사, 100만 건축가족의 생활과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장래가 보장되도록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 정책개발을 촉구하는 의미로 '2005 전국 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합니다.

1.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전문가의 위상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정비보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건축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 당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건축문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진정한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대가기준의 보장을 요망합니다.

3. 건축사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건축사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논의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일동

건축문화 선언문

오늘 우리 1만여 회원과 50만 가족들은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로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건축문화 환경을 되짚어 보고 21세기 미래에 펼쳐질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의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미 세계는 건축문화와 그 관련 산업에 있어 공존과 공유의 단일 문화권 시대에 돌입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서비스 시장개방은 우리 삶의 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간 민족적 특성과 삶의 개념까지도 현실 앞에 경쟁으로 다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문화 현실을 살펴보면 어떨습니까? 문화 경쟁은 경제논리와 제한된 창작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계약 일변도의 통과 의례형 법체제와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가 지배구조 형태로 존재 합니다.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기준들은 법률적 최소기준에 의해 지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과 아이디어 창작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가 건축 이념과 철학 그리고 사상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건축문화적 가치를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고와 인식으로 전문인의 무형적가치를 천시하는 사회풍조가 팽배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문화를 이어가야 할, 후진들을 담은 사회 그릇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신진 작가들은 아이디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제도와 사회 인식 등은 우리 건축문화 및 그 관련 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 창달의 토양이 되어야할 건축문화 시장은 도덕적 해이와 무질서로 붕괴되고 문화 경쟁보다는 생존 경쟁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문화여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변상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변화와 개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건축문화는 세계를 향한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이러한 문제 접근은 문화만을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문화와, 문화적 측면에서의 산업을 양면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분야는 특히 독창성과 무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만들어 가는 자들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 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화혁신 기화단' 설치운영은 건축문화에 대한 커다란 인식변화이며, 그 성과에 따라 현 참여정부의 위대한 업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선정한 건축문화 4대혁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과제: 건축문화와 미래산업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 등이 혁신 되어야 합니다.

제2과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배움, 관리 등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제3과제: 독창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굴, 보전, 육성을 위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제4과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떻게 건축문화 혜택을 증진시켜 주느냐의 경쟁으로 사회가 전환되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문화 혁신 실천은 미래로 가져가야 할 국가산업의 한분야로서 IT, BT산업뿐만 아니라, 건축문화도 AT(Architecture Technology)산업으로 규정하고, 건축 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 정부의 조직도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어 세계시장의 선진문화와 경쟁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은 취약하나 창의성과 독창성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건축 설계 디자인 창작산업이아 말로 세계와 경쟁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한 산업분야임을 확신합니다. 이는 국민들을 철학과 사상, 이념까지 담겨져 있는 건축문화 도시 속의 삶으로 증진 시킬 때 비로소 가능 합니다.

이 자리는 자기혁신을 통하여 건축문화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충정에서 비롯된 이 외침이 헛되지 않고 사회 곳곳에 퍼지고, 정착되어 대한민국이 건축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일념으로 오늘 이 선언을 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일동

대 회 사

존경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2005 전국건축사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문화상 열린우리당의장님, 한나라당 박근해대표님을 대신하여 참석해주신 김우성 사무총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허남식 부산광역시시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양문화도시 부산에서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로 '2005 전국건축사대회' 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건축사대회가 지난 93년 이후 12년 만에 그리고 우리대한 건축사협회 창립4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리게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고 소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을 기해 건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이 그 시대의 문화를 구현하는 근본으로서 사회적으로 공경대가 형성되도록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고, 건축사가 건축문화창조의 주체로서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을 실현하는 전문가적 지위를 굳건히 해 건축에 대한 정체성을 갖춘 창조적인 건축문화의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모두가 신념을 잃지 않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건축사로서의 올바른 정체성확립에 모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단히 뭉쳐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사가 되어야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향해 정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서로간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 가는 강한 의지와 노력입니다. 지혜와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새로운 미래의 건축문화의 장을 열어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협회 또한 가장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건축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든든한 협회,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축사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건축사들의 화합과 단합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경쟁력 있는 건축, 21세기 건축문화 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오늘 '2005 전국건축사대회' 를 그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우리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섭시다. '2005 전국건축사대회' 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건축사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 속의 건축사를 선포하는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굳게 손잡고 나아가길 때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 는 바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아무췌로, 이번 전국건축사대회를 통해 건축사의 위상이 한껏 드높여지고, 앞으로 새로운 건축의 중흥기가 펼쳐질 진심으로 바라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2005 전국건축사대회' 가 개최된 것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축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5전국건축사대회' 를 개최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찬해주신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일련어 전국건축사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 대회를 준비하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박신욱회장과 집행위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회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대한 건축사 협회 회장 이 철 호
2005전국건축사대회 대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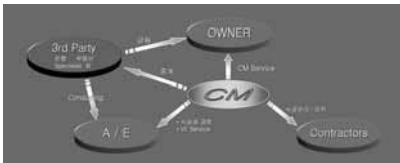
CM 그리고 건축사 업무영역의 확장

CM and the Expansion of the Architect's Role

이학기 / 동이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Lee Hak-kee

CM이란?

CM의 개념



- 프로젝트의 발굴 · 기획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시운전 · 조업 · 유지관리의 건설사업의 Life Cycle에서
 - 전문적 지식, 정보기술, 체계적인 관리 기법
 - 총괄적인 관리업무
 - 사업참가자들의 활동을 계획 · 조정 · 통제

CM의 정의

- CMAA(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완공까지 사업기간 · 사업비 · 품질의 관리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 AGCA(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 건설 프로젝트 기획 · 설계 · 시공 · 감리 등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에 대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방식
-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설계단계 · 시공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에 걸쳐 요구되고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건축사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특수한 관리 서비스
- 국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항)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분석 · 설계 · 조달 · 계약 · 시공관리 · 감리 · 평가 ·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CM의 유형

CM의 기본적인 개념 구분

- 관리방식으로서의 CM
 -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기술분야 통합 · 조정 · 통제의 관리기술
 - 건설사업의 복잡화 · 다양화에 따른 관리기술의 전문분야로 발전
- 발주계약방식으로서의 CM
 - 건설사업 수행에서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설공사 수행체계
 - 관리방식으로 CM기능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방식
 - 계약형태에 따른 CM 분류
 - CM은 정형적인 틀이 없음 : 사업의 목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
 - 일반적인 계약형태 : CM for Fee 방식 · CM at Risk 방식

CM 계약방식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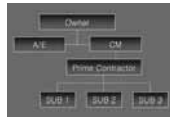
• CM for Fee 방식

- CM의 전형적인 방법
- CM은 발주자의 Agency로서 순수관리업무만 수행하는 방식
- 공사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자에게 귀속



• CM at Risk 방식

- CM이 발주자를 대신해 책임지고 공사수행
- 공사결과에 대한 Risk 부담
- 특정공사의 시공경험 요구 시 효과적



CM의 장점

- 프로젝트 관련조직(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들간의 마찰 감소
 - 프로젝트 관련 조직간의 지속적인 협의 가능
-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조정능력 향상
 - 품질향상, 공기단축, 원가절감
- 설계단계에서 VE(Value Engineering)의 적용 용이
- 설계단계에서 전반적인 시공자식 반영
 - 재설계의 감소 및 정확한 공사예정가격 예측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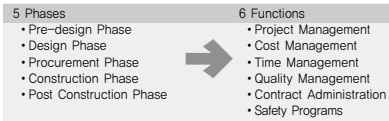
- Fast Tracking Method 적용에 의한 공기단축 가능
- 시공자의 리스크(Risk) 감소

※ 법 제2조 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역할분담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CM의 업무내용

CMAA 및 국내 기준

미국 CM협회(CMAA)의 표준 CM서비스 기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 건교부 건관 58824-656, 2001.8.20



CM사업자의 선정절차

[협상 방식] [기술/가격분리 방식] [적격심사방식]



CM의 적용 현황

미국 CM의 출현배경

- 미국의 사회적 배경
 - 1960년대 초반 SOC 신규투자 ·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확대 개선 필요
 - 도심지개발사업 · 고속도로사업 등의 건설투자 활발
 - 공공공사 물량 폭주 · 민간 건설수요의 증대
- 높은 물가상승 · 공기지연 · 공사비 증가
- 새로운 사업수행방식 필요성
 - 전통적 사업수행방식(설계 · 시공 분리발주) 등의 한계 노출
 - 발주자의 중앙집중식 관리체계, 단일화된 팀에 의한 사업수행 요구
- 새로운 관리기법 및 Tool 개발 적용
 - Computer의 개발 : 정보의 폭발
 - 고도의 공정관리 기법(CPM) 개발 적용
 - Fast Track, VE, LCC, Constructability Review 적용

CM의 단계별 업무내용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업무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단계	업무내용	발주청	사업관리	설계자	시공자	비고
사업관리 착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	승인	주관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승인	주관	-	-	
	직업분류체계 / 사업변화체계 구축	승인	주관	-	-	
	사업정보 축적 · 관리 및 PMS 운영	협조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기본 설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절차서, 직업분류체계 / 사업변화체계 등의 운영 및 관리	협조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변경시승인)
	건설공사 참여자간 조정업무	협조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건설사업관리 수행현황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	
	기본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공사비분석 및 개량공사비 검토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협조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기본설계의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	
실시 설계	공사 발주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승인	주관	협조	-	
	공정 · 공사비통합관리계획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실시설계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시공 단계	지급차제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시공자 선정	주관	협조	-	-	
	공정 · 공사비 성과분석 / 대책수립	승인	주관	-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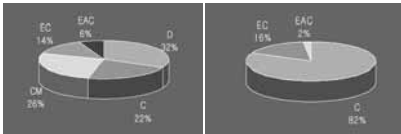
미국의 CM 추진과정

- 민간부분
 - 1963년 뉴욕 Madison Square Garden Project 최초 적용
 - 시카고 100층 John Hancock Center · 뉴욕 110층 World Trade Center 적용
- 공공부문 : 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1970년 설계 · 시공병행방식(Phased Construction)을 바탕으로 한 CM체제 수립

- 1972년 500만불 이상 프로젝트 CM 도입
- 1979년 CM 포기
 - ▷ 연방조달체계의 각종 제한
 - ▷ CM업체 자격기준의 불투명
 - ▷ 공공계약행정의 이해부족
 - ▷ CM의 권한이임 부족
 - ▷ CM계약의 이해부족
 - ▷ 신생기업의 참여로 인한 질적 퇴보
- 1983년 CM활용 제안서 작성
- 1986년 일부 변형된 형태로서의 CM 다시 적용

최근 미국 CM시장의 현황

- CM사의 다양한 기업 유형(2004년 기준) : ENR(Engineering News Record)



(상위 100위권 미국 CM사의 회사유형)

- 다양한 서비스 형태 · 대상사업의 다양화
- CM for Fee
 - ▷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의 범위가 설계 · 엔지니어링 · 시공을 포함한 건설 전반양
 - ▷ CM사 구성이 매우 다양
- CM at Risk
 - ▷ 절대다수(82%)가 순수시공만을 하는 일반 건설기업
 - ▷ 일부 엔지니어링과 건축을 겸하고 있어도 시공을 위주로 하는 건설기업
 - ▷ 100대 기업 중 설계나 CM을 주업역으로 하는 회사는 전무

미국 CM체계의 시사점

-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
 - 미국의 CM사 : CM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기 보다는 EC회사
 - 구조물의 Life Cycle를 통하여 통합된 관리체계의 수행 능력 중요
- 부문별 CM서비스의 상품화
 - 미국의 CM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다양화 : 규모 · 참여시기 · 참여형태
 - 종합적 CM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
 - CM서비스의 부문별 상품화는 EC화를 전제로 가능

- 시공 이전 단계(Pre-construction Phase) 기술력의 중요성
 - CM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는 시공 이전 단계의 기술력에 좌우

국내 CM의 역사

국내 CM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 CM의 개념 소개
 - 70년대 해외건설 프로젝트 참여로 민간기업에 소개
 - 80년 중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 Project management
 - 90년대 초 신공항건설사업 · 고속철도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CM 적용
- 제도적 차원의 추진과정
 - 90년대 전후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과정에서 논의
 - ▷ 1994년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계속적인 부실시공이 사회 문제화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 도입
 - ▷ 종합건설업 대안으로서의 CM
 - ▷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 사업관리 능력 배양
 - ▷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 : 종합적인 사업관리 기술 제고 필요성
 - 서울월드컵경기장 프로젝트 등 월드컵 경기장에 CM적용
 - ▷ 책임감리의 추가업무 형태
 - 1999년 3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 종합대책에 CM관련 사항 포함
 - 2000년 9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CM업무 신고제 도입
 - 2001년 1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에 CM의 업무지침 · 대가기준 · 선정기준 등 세부 시행지침 마련

CM 관련법규

- CM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항
- CM발주 관련규정 및 대상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 CM의 세부업무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의4 제1항
 - 세부사항은 CM업무지침(2001.8.20)으로 정함
- CM과 다른 용역과의 관계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
 - CM을 적용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 CM업무범위에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9조

-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1호(2001.12.31)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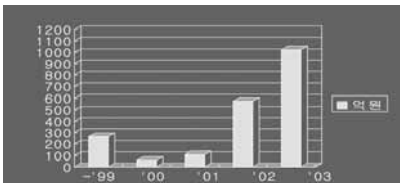
- CM의 대가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 대가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0호(2001.8.25)으로 정함
- CM 손해보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3
 - 세부사항은 설계, 감리등 영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28(2001.12.14)으로 정함

정부의 CM 정책방향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0~2003)
 - CM방식 활성화
 - : 발주자의 관리능력 부족 보완,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 CM계약의 활성화 기반 구축
 - : 예산확보방식, 업체능력 평가, 대가산정 등에 대한 시행기준 제정
 - CM for Fee방식 우선 정착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4~2007)
 - CM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 CM제도 정착 및 발전전략 수립
 - 선진형 CM기본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시범 프로젝트의 적극추진
 - 2007년까지 공공건설사업의 CM적용 점차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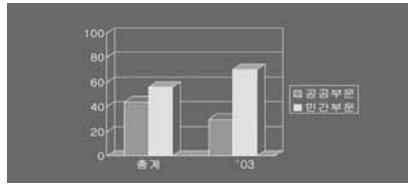
국내 CM의 적용현황

국내 CM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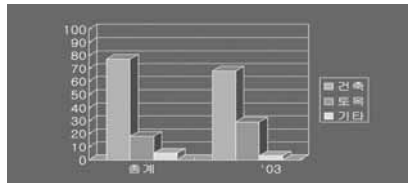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입부터 2003년도까지 실적
- 2004년도 : 1천600억원(공사비 추정 4조원, 국내 전체공사의 5% 추정)
- 2005년도 : 3천500억원 예상
- 총 46개 CM사가 226건, 2천26억원의 CM실적
- CM발주 해마다 100%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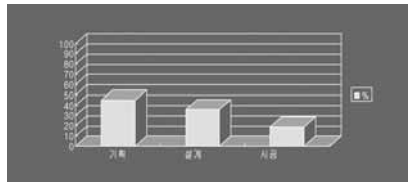
- 1996년 12월~1999년 : 265억원, 2000년 : 57억원, 2001년 : 107억원, 2002년 : 575억원, 2003년 : 1천22억원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입부터 2003년도까지 실적
- 총 46개 CM사가 226건, 2천26억원의 CM실적
- 민간부문의 활성화
 - 공공부문 : 884억원(44%), 민간부문 : 1천42억원(56%)
 - (2003년도) 공공부문 : 30%, 민간부문 : 70%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입부터 2003년도까지 실적
- 총 46개 CM사가 226건, 2천26억원의 CM실적
- 건축부문의 활성화
 - 건축부문 : 1천567억원(77%), 토목부문 : 361억원(18%), 기타 : 98억원(5%)
 - (2003년도) 건축부문 : 68%, 토목부문 : 29%, 기타 : 3%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입부터 2003년도까지 실적
- 총 46개 CM사가 226건, 2천26억원의 CM
- CM 참여단계 (2003년도)
 - 기획단계 : 45%, 설계단계 : 36%, 시공단계 : 19%

국내 CM의 주요 성과와 향후 수주

국내 CM Project의 주요 성과

- 주요 설계기준 조기확정 및 객관적인 기술 검토 : 설계 · 시공 관련 문제의 사전예방
- Fast Track 적용 : 공사중단요인 사전대응, 증설기 중요공정 회피, 공기단축 효과
- 설계VE, Cost Planning : 성능향상, 사업비(예산) 절감
- PMIS 운영 : 발주자, CM사, 시공자의 상호 공사정보 공유체계 확립
- 클레임 및 분쟁 대응

CM Project의 향후 수주

- 발주자 기술인력의 부족 : BTL사업 등
- 수해복구 등 단기사업의 증폭
- 경험이 부족한 사업에 대응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
- 재개발 등 복잡한 행정업무 : 재건축/재개발 프로젝트

건축사 업무영역의 확장

국내 건축사 용역의 범위

건축사 용역의 범위 - 건교부공고 제2002-270호 (2002. 10. 15)

- 설계업무
 - 가. 기획업무
 - 나. 건축설계업무
 -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 1) 리모델링 설계업무
 - 2) 인테리어 설계업무
 - 3) 음향, 차음, 방음, 방진설계업무
 - 4) 3D 모델링업무
 - 5) 모형제작업무
 - 6) VE설계에 따른 업무
 - 7) Fast track 설계방식업무
 - 8) 휴막이 상세도 작성업무
 - 9) 건축물 분양관련 지원업무

• 공사감리

- 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나.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기타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업무
-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

• CM 업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 업무

•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설계기준 작성

-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 중 건축물과 건축물 · 도로 · 녹지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 · 규모 · 형태 · 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 기타

-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 나.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 마. 건축공사 시업타당성 분석업무
-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 사.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AIA 업무영역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건축사 업무영역

- 8개부문 83항목 제시
- 사업관리 서비스, 설계 전 서비스, 대지개발 서비스, 설계 서비스, 입찰관련 서비스, 공사관련 서비스, 공사 후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

사업관리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01. 사업관리	지문 조사, 회의, 협의 진행보고서
02. 발청수립 / 서류정검	설계와 엔지니어 사이의 조청 서류에 대한 점검
03. 컨설팅 / 검토 / 진행	중요법규인도, 지역어문수립, 계획수립, 행정청업무대리
04. 발주자 자료정검	발주자의 프로젝트자료 검토, 기준수립, 자료수입
05. 사업일정조정 / 관리	초기일정계획수립, 각 단계에 따른 일정계획 조정
06. 예비견적	예비견적수행, 각 단계에 따른 견적조정
07. 제출물작성	발주자 / 발의인주자 / 사업수행자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출물

설계 전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08. 설계계획	설계목적 / 재한 / 기준수립, 초기의 직장공간계획진행, 특수장비/구조, 대장구사할, 계획과 일정에 대한 예산계획, 보안기준, 사업일정
09. 공간설정검토	내부기능, 동선 공간배분, 운영가능, 특수시설
10. 시설조사	현장측정, 현장제안과 설계/구조/기계/설비
11. 마케팅 조사	현재자료의 정리 및 검토, 우편조사, 면접조사, 자료분석, 자료 모달링, 컴퓨터를 통한 분석, 보고서 작성
12. 경제적 타당성조사	현재사업비용, 운영비용, 조달비용, 사업단계의 현금흐름, 투자회수, 직접지출비용
13. 금융조달	금융가능성조사, 사업 각 단계에 따른 금융조달

대지개발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14. 대지분석/선택	대지조사, 교통수단조사, 지형조사, 법적규제조사, 건설관련여건조사, 대지의 전체적인 평가, 비교대지의 분석
15. 대지개발계획	토지이용, 건물배치, 시설물검토, 교통편리시설검토, 대지표면과 지형의 상태조사, 법적규제조사, 조경계획수립
16. 상세대지 이용계획	토지이용, 건물배치, 시설물검토, 교통편리시설검토, 대지표면과 지형의 상태조사, 토양조사, 식생조사, 경사도 분석, 법적규제조사, 조경계획 및 재료활용
17. 대지 내 시설조사	전기사용시설, 가설사용시설, 우수사용시설, 배수, 하수처리, 우수처리, 화재관련시설, 보안장치, 조명, 통신시설
18. 대지 외 시설조사	시설물의 위치/규모확정, 시설물결 필요사항 확정, 대지의 시설물의 계획과 설계
19. 환경연구/보고	환경평가보고서, 환경영향보고서, 공회청정, 정부기관제출물 작성
20. 지역지구 검토	신청서준비, 첨부자료작성, 제출물작성, 공청회참석
21. 주변공학	보행시행, 내재시설, 특수시설, 보고서 및 전문가의견작성
22. 대지조사	법적인 제한과 시설물의 위치/정보 등에 대한 자각보유 전문가의 의견

설계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23. 건축설계/도면작성	개념설계, 실시설계
24. 구조설계/도면작성	구조설계, 대안제시/구조시스템, 기초설계, 재료, 상세도
25. 기계설계/도면작성	기계설계, 대안제시/정정설비/규모, 기본배치, 필요공간, 소음
26. 전기설계/도면작성	전기설계, 대안제시/조명/전기/통신설비기준, 주요구성요소의 규모, 기본배치, 필요공간
27. 토목설계/도면작성	토목설계, 대안제시/대지내외의 시설물, 화재예방시스템, 배수시스템, 포장
28. 조경설계/도면작성	조경설계, 대안제시
29. 내부설계/도면작성	내부설계, 대안제시/내부구조, 특수내부설계, 가구 등의 선정, 마감재의 재료/색상
30. 특수설계/도면작성	

입찰관련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31. 자료조사	
32. 입찰관련조사	일치여부검토, 재정성, 완성본검토, 배포, 서류의 접수/인승
33. 부가자료	
34. 입찰/협상	입찰참가자선정, 사전조사역사, 사전입찰참가, 입찰내용설명, 개찰, 입찰기록서류화/입찰결과의 통보
35. 대안조사	입찰참가 제안된 대안에 대한 평가
36. 특수입찰	개찰참가, 협상참가, 다수계약자결정, 기술제안서평가
37. 입찰평가	입찰서평가, 낙찰자선정/통보, 낙찰자선정과정의 협상참가
38. 낙찰자선정	낙찰서통보, 공사계약준비, 보합/보증관련업무

공사관련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39. 재출시료	계약관련제출서류에 대한 관리
40. 의견제시	
41. 재출시작성	
42. 시정청사관리	
43. 추가시정업무	도면/시정서 관련업무
44. 시가견적요구/설계변경	설계변경관련업무, 발주요구사항변경, 시공자에 대한 기준제시
45. 계약금액산정	비용지출기록관리, 비용지출평가, 시공자가 제출한 비용지출에 대한 검토
46. 부속물관리	설치기간제약에 대한 자료, 부속물의 계약사상의 부합여부 검토
47. 해석/결정	계약사상의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검토
48. 시업완료	사업의 계약사부합여부 검토, 지급보유금액정정, 부당성 등의 전달, 사업완료의 최종확인, 최종지불승인서발행

공사 후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49.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계획자료, 유지관리매뉴얼 작성완료
50. 초기운영지원	관리운영안내교육
51. 관리도면	관리도면확보/발주자전
52. 보증서검토	보증기간내의 보증내용에 대한 자료, 하자부담에 대한 서류작성
53. 공사 후 평가	초기계획과 실제 시설물 사용비교, 계획구간의 기능적인 활용도, 시스템과 재료의 운용활용도

추가적인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54. 특수조사	음향/조명/통신, 보안시스템, 공사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55. 일주관리서비스	공간계획, 가구/시설물배치, 마감재의 선택, 입주자의 요구에 따른 설비의 조정, 공사비 예비견적
56. 특별부속물설계	설계 상세도, 구매, 설치
57. 부속물설치서비스	구매, 설치관리
58. 특수사업범위참조문	음향, AV시스템, CMP공정표, 통신, 컴퓨터기술현용, 인공통계 연구, 보합,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차차관리, 부등산 지문 등의 30가지 항목
59. 특수건물영역제문	
60. 장식물관련	장식물 디자인 통합관리, 구매관리
61. 그래픽작업	내외부사용시설, 재료/색상선정, 구매, 설치
62. 투시도작성	일련도, 투시도 작성
63. 모델제작	각 단계에 따른 스케일링 모델제작
64. 사진제작	현장조건 항공사진, 유사시설물의 사진, 모델사진, 공사진행 사진, 현상을 사진
65. 동영상제작	
66. LCC분석	
67. 가치분석	
68. 에너지관련연구	
69. 수량조사	입찰/협상을 위한 상세공사의 확정, 시설물/부속물의 수량확정
70. 상세견적	
71. 주변환경측정	
72. 전문가의견	
73. 재료/시스템시행	
74. 피로	
75. Mock-up 제작	설계 견적, 공사, 결과의 검토/분석
76. 전문서비스	경제적인 조사, 사회적인 영향조사
77. 부속물구매/설치	가구/구입/설비 등의 구매, 설치
78. 컴퓨터활용	설계계획, 경제제타당성, 재무분석, 대지분석, 공사비견적, 공정표작성, 시정분석, 건축/구조/기계/전기설계, 도면작성, 공사비용회계관리
79. 사업추진/공정업무	광고/홍보제작
80. 일대용 건축물제작	
81. 계약인 관리	계획/입찰/예산의 타당성평가, 상세입찰조건, 상세견적조건
82. 계속적인 입찰관리	입찰자관리, 입찰일정수립, 입찰서류정정/정정입찰처에 대한 추천 건물허가자문, 견적비용과 실제투입비용간의 관리, 계속적인 일정관리, 비용관리에 대한 자료
83. 계속적인 계약관리	

국내와 AIA의 비교

국내와 AIA 건축사 업무영역의 비교

• 종합적 관점

- 국내 건축사 영역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AIA의 업무영역은 사업 추진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국내 건축사 영역의 범위는 설계업무와 공사감리 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AIA의 업무영역은 건축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사업관리, 설계전, 대지개발, 입찰관련,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CM 관점

- 국내는 법률에 정하는 CM업무를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AIA는 사업추진단계별(8개 부문) 업무내용에서 발주자 대행업무로서 규정하고 있음
- AIA는 설계단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발주자 업무의 대행개념에서의 CM의 핵심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건축사는 CM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CM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는 시공 이전단계의 기술력에 좌우된다. - 기획 및 설계단계의 발주자 요구사항의 대행업무는 건축사의 핵심업무이다.
- CM for Fee의 경우, 기존 설계업무에 공사감리업무와 관리적 기술을 확충한다면 건축사업 주체 중 설계사무소가 CM시장의 진입에 가장 용이하다. - 전통적으로 건축사업추진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대행한 주체는 건축사이다.
- CM은 업무수행을 위한 특정면허의 보유나 사설·인력 구비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2004년도 기준, 미국의 CM for Fee 시장의 연간 수주금액 대비 100대 회사 중 32개사가 설계회사(Design Firms)이다.

왜 건축사는 CM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 건축사 업무영역의 제한성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문제이다. -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용역수입은 설계와 감리에 국한되어 있다. (설계용역 수입 : 77%, 감리용역 수입 : 20%, 기타 수입 : 3%)
- 2004년도 기준, CM 공사업체 중 건축사사무소는 37개사이다. - 향후 감리업무의 상당부분이 CM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향후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발주자의 요구사항(CM 업무)을 만족하여야 가능하다. - 발주자의 기본 사업구상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으로 사업성

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제공
-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경제적 설계대안 제시 및 설계 Interface 제공
- 설계대안에 대한 최적 공법 제안 및 최소의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 방안 제시
- 관련법규에 합법적인 인허가 프로세스 방안 제시
- 건축사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건설사업관리(CM) 적용 사례

Examples of CM Application

도상익 / itm 코퍼레이션

by D ● Sang-ik

CM 시장 동향

국내 건설 시장 현황

- IMF에서 벗어난 2001년 이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건설시장이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로 현재 그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5년 또한 미나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또한, 엔지니어링 및 감리시장의 경우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올해는 큰 변화없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CM 시장 현황

- 반면 CM 시장의 경우 건설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그 시행이 명문화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특히 2005년도 CM 시장은 전년대비 약 100%의 성장률을 보이며 그 시장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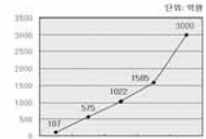


그림 1. 연간 CM 시장 규모

CM 시장 확대배경

-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상암, 전주 등 월드컵경기장등의 CM 적용 이후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CM에 대한 인식변화
- 사례: 상암 월드컵경기장등의 경우 30억원 절감 및 4개월 공기단축, 전주 월드컵경기장등의 경우 10억원 절감, 4개월 공기단축

CM 적용 효과

- 원가절감: 설계, 시공단계의 VE 수행 및 설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사비용 절감, 도면의 품질, 시설물의 기능 향상, 시공성 개선 가능(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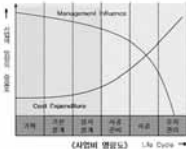


그림 2. CM 적용 효과

- 공기단축: Fast Track/설계, 시공병행을 통한 공기단축, 계획 대비 실적관리를 통한 공기 지연 예방

VE 도입 배경

- 건설시장이 발주자와 고객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고객만족과 시설물의 가치향상을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이 대두되었음
-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현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 등의 건설 선진국에서는 이미 VE(Value Engineering)기법이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수익개선, 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이에 국내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확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VE를 1990년대 말부터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도입, 적용해 왔으며 2000년 VE시행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기에 이름

VE 적용을 통한 원가절감

- 미국의 경우 1963년 건설분야에 VE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미국 교통부에서 발표한 최근 11년간 VE 절감액은 당초 설계액의 12.4%인 약 1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됨
- 국내의 경우도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자체 VE를 통해 5,757억원을 절감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의 경우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456억원의 원가를 절감하였음
- 본 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악구청 신축공사 CM사업의 경우도 VE로 48억원을 절감하여 총 공사비 666억원 중 약 7.2%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CM용역비인 18억원의 2.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VE 적용 효과

- 대상 시설물의 체제이나 규모를 축소시켜 전체 투자비를 절감
- 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효과는 매우 크며, 발주자가 법적인 제재나 규정에 ஏ매일 필요가 없고 오직 예산 절감이나 건축물의 효과 증대에만 기술력과 노력이 집중될 수 있음
- 설계 단계에서의 VE 적용 시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에 비해 절감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남
- 건설 공사비는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의 VE도입이 필수적임

CM 적용 사례

CM 시범 사업

- 2002년 정부는 건설시장의 CM 활성화화를 위하여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시범적으로 5개의 공공건설사업에 CM 용역을 발주함
- CM의 체계적, 과학적인 관리기법의 적용 결과, CM 도입시기,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사업에서 프로젝트의 비능률적 요소제거 및 생산성, 효율성 향상이 입증됨

CM 시 범 사 업	예비-지명권 도로복합공사	광진역발전소 발전용	한양대(경기) 수목조성사업	공서기간 03.03~03.07 공서비 1,379만원
	경안-죽영간 도로복합공사	역대유류보유 발전용	한양대(경기) 발전용	공서기간 03.03~03.07 공서비 1,379만원
동명동계소	한대오송사업	IBN	공서기간 03.03~03.11 공서비 11만원	
관악구청지구 배수관 개조공사	대안주택공사	IBN + KCM	공서기간 02.05~04.06 공서비 1,014만원	
개포동경매지역 비도면일부공사	대안주택공사	Owner명 CM	공서기간 02.05~03.06 공서비 2,271만원	

중앙선 동명동계소, 주유소 신축공사

프로젝트 개요

명칭	중앙선 동명동계소/출천형합계소, 주유소, LPG충전소 신축공사 CM 용역
발주방식	민자유치(SOC)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설계, 시공자 지정
대지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120-2, 117-7번지 외
사업규모	면적: 165,000㎡(50,000평) 대지면적: 5,931㎡(1,797평) 연면적: 4,260㎡(1,291평) 간베율: 0.65% 중첩률: 0.19%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하 1층, 지상 2층
총 사업비용	약 11,000,000원
용역기간	2003. 8. 12 ~ 2004. 12. 28
사업특성	기분물계단계 CM 도입



CM 업무 범위



프로젝트 수행 조직



- 공동주책 LOB 분석을 통한 골조공사 공기단축 방안 제안
- 계약/클레임 관리, 리스크관리, 건설정보관리(PMS) 업무 수행
- 파트너링 공조협업체 구성방안제
- ⇒ 주거공간의 기능향상, 공기단축을 통한 여유기간 확보, VE를 통한 원가 절감

프로젝트 수행 조직



주요 업무 실적

구분	실기VE를 통한 원가절감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주안점	-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공간 창출 - 신기술·자재 발굴을 통한 설계 기능성 향상, 시공성 개선, 실행공사비 절감	- 15개월인 설계/시공의 절대공기 준수 - 공기 내에 최적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공정관리 목표 설정
실적	- 약 6억엔총 공사비의 6%의 원가 절감 건축/구조분야: 8개 제안, 약 4억원 토목/조경분야: 3개 제안, 약 1.5억원 기계/전기분야: 7개 제안, 약 0.5억원	- 시공 1개월, 인테리어나공사 2주 단축 - D Day 예측기능을 통한 해당공정 공기 단축 시행 - Easy Pem Pro V1.9를 활용한 예정공정표 작성으로 과학적 공정관리 수

PMIS 활용

- PMIS 구축으로 오프라인 문서 최소화



주요 업무 실적

구분	실기VE를 통한 원가절감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주안점	- 기존 설계도서 및 내역서의 적정성 검토 - LCC를 고려한 신기술/자재 도입방안	- 우기 등 한성기후 여건에 의해 지연된 2개월의 공기 단축 - 골조 및 마감공사 공기단축 시도
실적	- 약 6억엔총 공사비의 0.8%의 원가 절감 - VE 수행을 위한 건설주제간 파트너링법 의제 구성 및 운영 - 파트너링, 기능성, Brain Storming, Cost Modeling, Matrix, 분석기법 적용	- LOB 분석기법 활용으로 골조공사 2개월의 지연공기 단축 - TACT/LOB 개념 도입으로 마감공사 1개월 단축하여 예비준공공사 품질확보

천안백석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프로젝트 개요

명칭	천안백석 2BL CM형 책임관리 용역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북서동 택지개발지구 2BL
사업규모	대지면적: 54,167㎡ (16,396평)
	연면적: 84,872㎡ (25,674평)
	건축면적: 7,547㎡ (2,283평)
	건폐율: 13.93%
	용적률: 147.32%
호 수	10개동 750호
총 사업비용	약 85,413,902천원
용역기간	2002. 6. 28 ~ 2004. 6. 15
사업특성	시공단계 CM 도입



CM 중점 사항

- 시공VE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 선진 공정관리 기법 도입

PMIS 활용

- 행정정보의 전자화로 업무처리기간 단축



CM 시범사업 비교분석

프로젝트	동명휴게소	천안역서
발주방식	분리발주 + CM 책임감리	분리발주 + CM 책임감리
공사비	11,988 백만원	43,680 백만원
용역기간	12개월	25개월
CM 도입시기	기본설계단계	시공단계
CM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단계에 CM도입으로 기본 설계/VE를 통한 원가절감효과 가장 우수함 - 실시설계/VE를 통한 현장 시공정보의 반영 및 부부적 설계/VE 개선으로 전체적인 사업의 품질 향상 효과 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공사의 자체 실시설계 완료 후 CM직용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설계/VE 적용 곤란 및 Fast Track 도입 불가능 - 실시설계 완료 후의 설계검토 진행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플러임 발생 가능 - 시공단계의 리스크관리(중대품질하자와 시공/VE를 통해 원가절감

양산 부산대병원 건립공사

프로젝트 개요

명 칭	양산 부산대병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차위치	경남 양산시 양산소도시 제 3연차(제 1내 불역 부산대학교 제 2캠퍼스 조성부지 내)
발주방식	탄기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 - 대차병원 : 지하2층, 지상12층, 79,292㎡(상19,954㎡) - 치과병원 : 지하1층, 지상 6층, 20,311㎡(상12,027㎡)
사업규모	- 간호센터 : 지하층, 지상 6층, 178평생(5,563㎡) - 정형신장 : 지하2층, 지상 1층, 12연소(4,123㎡)
용역기간	2002. 6. 28 ~ 2004. 6. 15
사업특성	시공단계 CM 도입



CM 발주 배경

- 탄기발주에 따른 발주자의 업무 지원 필요 : 인입안내서 작성, 설계 심의 등 발주 업무 복잡
-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 : 부족한 공기를 패스트 트랙 적용을 통하여 공사기간 확보, 사업비 증가 방지
- 차수별 공사 개원으로 병원개원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 및 공기 준수 : 예산배정상 개원시기 및 규모를 1차(500Bed), 2차(200Bed, 치과병원, 간호센터)로 나누어 추진
- 발주기관의 사업조직의 미약함을 보완 : 행정직 2명, 기술직 3명(건축 1, 기계 1, 전기 1)으로 최소 규모로 건립추진단 구성

CM 중점 사항

- 기획/설계/입찰/계약/시공/준공 전 단계에 걸친 사업관리/감리 업무수행
- 공정 및 원가관리를 통한 준공 목표 달성
- VE/LCC를 고려한 최적의 설계 및 시공방범 도입
- 사업관리 정보화를 통한 정보의 축적과 유지관리 활용방안 제시

- 분야별 경험자의 투입을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 운영체제 제공

프로젝트 수행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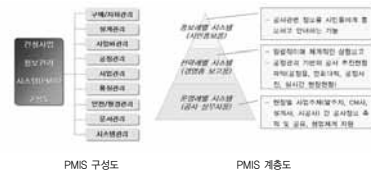


주요 업무 실적

구 분	설계/VE를 통한 원가절감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기발주 후 일괄사업자 선정에 따른 기본설계/VE에 대한 VE 수행 - 설계관리를 통한 원만한 실시설계 진행 - 약 8만엔(총 공사비의 4%)의 원가 절감 - 발주자, 탄기사업자, CM단이 참여하는 VE 조직 구성 - 계약서상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관리자와 시공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공기 내 사업 완성을 위한 사업 공정계획 수립, 공정현황 분석, 공기 단축을 위한 대책 수립 - 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여 통공사를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실시 - 계약자설계와 동시에 기초설계자료(지질조사, 시험타기, 시험타반형, 통공사 선시공) -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발주자와 협조하여 조인완료
실적		

PMIS 활용

- 주요 사업추진현황 및 제반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결 론

- 발주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극대화
- 리스크 예측 및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
- Fast Track, 선진공정관리 기법 적용 등 적극적인 공기단축 노력 진행
- VE 수행, 설계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 품질 및 기능 향상 효과
- 건설정보시스템(PMIS) 구축을 통한 실적정보 축적 및 조직간 의사소통 체계 지원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보고

◆ 전국건축사대회,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전국 건축사들의 열화 같은 함성이 국민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자.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의 강렬한 투지가 정책당국자의 단한 심금을 반드시 열게 만들어야 한다. 이벤트로만 끝나지 말고 정기회, 국제회, 한국건축문화대전도 함께 열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축사업무에 필수불가결한 연수강좌와 다양한 세미나의 선별참석이다. 우리도 당당하게 전문성으로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형식적이고 전직인 대회는 그만 접고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대회로 새롭게 바꾸자. 건축의 수위를 더욱 창출하는 큰 계기가 되고 건축의 수준도 한껏 높이는 그런 성공적인 대 집회가 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경험축적과 완벽한 행사기획만이 이를 뒷받침하고 또 보장해 줄 것이다. 인제고 기다리지는 전국건축사대회,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전국건축사대회, 앞으로는 이런 건축사대회를 보고 또 보고 싶다.

(김영수 /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평가하여 본다!

이 땅에 건축사협회가 생긴 지 40년이다. 그러나 93년 서울 대회 이후 건축사대회가 열리지 않아 전국 건축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부산에서 그런 자리가 마련되다 하여 나는 떠나기 전부터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가졌다.

총북건축사회는 육산 서원과 양동 마을을 답사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 전에 출발했다. 100여명의 동료 건축사들이 함께 했다.

그들 중 12년 전 서울 대회를 경험한 건축사는 1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만큼 젊은 건축사들이 많았다. 그 젊은 건축사들 역시 이번 전국건축사대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 토론도 하였다. 설계감리비 정상화에 대한 총북건축사회 회원들의 동참과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그 대안인 토론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인간의 한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육산 서원과 양동 마을을 답사하였다.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이었지만 회원들은 시선을 활영하는 등 고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답사를 마쳤다.

부산에 도착해 해운대 한국코도에 여정을 펼쳤다. 저녁에는 총북건축사회에서 마련한 자리에서 화와 소주로 회원들의 단합을 다졌다. 건축 경기의 불황과 이번 저런 삶의 애로점들을 나누며 잔을 기울이는 동안 밤은 깊어갔다.

다음 날 행사장에 도착하니 10시였다. 건축사자 전시장을 관망하며 새로운 건축지재 카탈로그(catalog)를 수집하고, 2층에 CM세미나를 참관, 경청을 하니 점심때 되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비닐천막 아래서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도사리(도)로 동료 건축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미 작품 전시회는 광장중앙에 있다. 너무 뜨겁고 무더워서 아쉬웠지만 관리를 포기하고 있었다.

시원한 곳을 찾아 행사장 이곳저곳을 다녀 보았지만 마땅치 않아 실 만한 곳이 없었다. 무더위에 지친 일행은 분행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나마 분행사장은 시원하여 맘을 식힐 수 있었지만 분 행사 리허설도 몹시 시끄러웠다.

오후 2시, 드디어 본대회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다. 특정회사의 광고 VTR 상영을 시작으로 패션쇼가 시작되었는데 건축사대회인지 아니면 어느 회사의 발표회인지 알 수가 없었다. 건축사회원 5명이 출연 한다는 것 외에는 건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 아무리 오프 온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회원들의 실망이 컸다. 시간이 아까웠다. 차라리 이 시간에 대회를 시작했다면 입장을 앞당겨 마칠 수 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가지며 뒤를 돌

아보니 대화장 좌석은 꼭 차 있었다.

패션쇼라고 하지만 관객들에게는 의상보다 출연 모델들에 더 눈이 가는, 제보다 젓법에 더 관심이 컸던 쇼였다. 어쨌든 출연한 동료 건축사들의 어설플은 위장에 웃음과 격려의 박수로 오프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 시작을 알리는 팽파르(fantare)와 함께 부산지역 광고가 멀티비전으로 방영되고, 또 여고 관악부의 '돌아와요 부산항' 연주도 이어졌다. 이제 드디어 본대회가 시작하는구나 하고 앵름새를 고쳤다. 일부 내빈들이 무대 앞좌석에 앉고 사회자의 소개로 부산시 건축사회 부회장의 내빈소개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부산지역 구 의원, 교육감, 대학 학장까지 소개를 할 게 보면서 이 대회가 부산 지역 행사인지 전국 대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건축사들이 모두 모이는 '전국건축사대회'이다. 그러면 대회의 규모에 맞게 내빈 소개도 격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가.

하루엔 내빈소개가 끝났으니 '이번 정발로 시작했구나.' 하는 기대 속에 진행을 기다렸다. 그 때 사회자의 '내빈 입장'에 대한 안내 방송이 있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내빈 입장은 진행되지 않았다. 모 인사의 행사장 도착이 늦어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자 끼워 넣기 식 공연을 한참 동안 봐야만 했다.

이윽고 다시 내빈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고 대회 집행위원장의 입장을 선두로 건설교통부 장관, 정당 대표까지 출몰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내빈들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의식이 진행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의전은 일부 사회단체의 광내기시 행사인데 우리 건축사회도 꼭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광내기 위해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인가? 집행위원장은 대회를 개최한 주인공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며 부산시장 입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박수도 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가 막히는 느낌이었다.

도대체 단상에 올라 손을 치켜든 저 사람들이 참사자들에게 무슨 영광된 일을 했기에 이론록 큰 환영을 받는 것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냐, 왜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는지 대체 참사자들만 동료 건축사들에게 묻고 싶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 건축사들의 현주사인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자가지역 건축사회장의 입장에서 환호의 박수가 이어지고 대회장지의 입장에 기립박수를 치라는 사회자의 말에 모두가 기립을 하였으나 박수는 그리 환호의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집행위원장의 필요 이상으로 큰 환영사에 이어 대화장의 대화시가 있었다. 그러나 대화장의 대화시마저 회원들의 파부에 의 달는 아기가 아니라 원본적 아기로 이루어져 있어 회원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그런 저런 아쉬움 속에 12년 만에 열리는 오늘 이 대회를 출발점으로 삼자'는 말로 위안을 삼았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축사가 있었는데 의례적인 인사 끝에 '장관으로서 건축사를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로 회원들은 위안을 가졌다. 정당 대표들의 축사가 있었고 그 뒤 정당 대표와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사가 진행 중인데도 가버렸다. '건축문화 선언문' 낭독은 분행사의 하이라이트라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정당 관계자 등 외부 인사들이 모두 떠난 자리에서 '건축문화 4대 핵심 과제' 등을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은 우리뿐이었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서 끝나지않는구나! 차라리 대화장 대회사에서 밝히면 외부인사들이 틀리다고 했을 텐데' 그런 씁스름함을 씹는 동안 분행사가 5시에 마무리 되었다.

이어 백스코 광장에서 '건축사 만민들의 광장'과 '2005 전국건축사대회 결과선보'가 있다는 안내 방송에 이끌려 광장으로 나왔다. 어느덧 오후 5시가 넘어 더위도 한참 꺾이고 바람도 조금 불고 있었지만 아직도 햇살은 뜨거웠다. 비닐

찬악 아래 다리가 준비되어 있어 동료 몇 분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그 곳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불륨을 열어나 올렸는지 피그리진 음향은 내 귀를 불쾌하게 울렸다. 음식을 먹는 동안 무대에서는 이상용씨의 사회로 이름 없는 연예인들의 어설플 공연이 시작되었다. 함께 지리한 동료들은 그만 돌아 가길 원했지만 100명의 회원이 저마다 출석하여 그것도 쉽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동료들은 현안권에 기대를 걸으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팩 소주 몇 개를 가져다 나누어 먹었다. 이상용씨의 외설적인 코미디로 지루함을 달래는 동안 6시가 넘어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안개가 끝나고 있다고 이름도 모르는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 그 여자 가수가 '12년 만에 이 대회를 한다면서요?'하고 말하자 마침내 다들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저런 가수 일에서까지 12년 만에 부산에서 전국건축사대회가 열린다는 소리가 왜 나올까? 12년 만에 부산에서 주관하는 것이 자랑스러워 대회준비위원들이 이곳저곳 떠돌고 다닌 건가? 아무튼 불쾌한 심정들은 가실 줄 몰랐다.

어디든 8시가 다 돼서야 2005 대회 결과 발표로 대회를 끝내려고 하니 자벌레 수백에 없었다. 도대체 무슨 결과를 선포한다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 오늘의 대회가 대상공을 이룬 알찬 대회였을까? 대회가 지나치자 찬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무더위에 먼 대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무슨 결과 발표인가? 어떤 결과를 얻은 게 있는가? 대회 준비위원회 측의 '건축문화 선언문'이나 행정부로부터 이 대회를 통해 얻은 결과라도 있는가? 우리는 이 대회를 왜 가졌는가? 부산건축사회 조호흥 건축사 '호소문'처럼 우리 피부에 외 달는 문제들 우리의 살아갈 길을 우리 자신들이 아니면 누가 찾아줄 것인가? 이 많은 건축사들이 오늘 대회에 참석하여 무엇을 했고 무엇을 기억하고 갈 것인가?

오늘 저녁 건축사들은 모이면 모두 어려움을 토로한다. 건축사 전국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떠나면서 무엇보다 일말의 기대를 걸으며 희망을 품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행사 전 날 저녁 콘서트에서 동료 회원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격려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일과 무더위 속이었던 양동마을과 옥산서원을 답사한 것으로 위로를 삼는다.

2년마다 전국건축사 대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집행위원들이 부탁드리는데 다음 대회부터는 사회단체의 광적인 행사를 흉내 내지 말고 우리만의 행사로 기획하여 건축사의 고유 행사로 그 빛깔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들인 만큼 회원 모두에게 공감이고 무엇인가 가슴에 담아가고 남을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인 단체입니다. 전문인의 전국 규모의 대회라면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대회가 하나로 모이진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대정부 등 이 사회에 우리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소견이지만 참고하시어 다음 대회부터는 보다 알찬 대회가 열리길 부탁드리며 다시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김경구 / (주)제이에이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대회와 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하자!

최근 건축사들은 주위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 건축사의 위상정립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건축사대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최하면 비용절약과 함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방법

건축사협회에서 건축박람회를 창설하여 건축사대회와 함께 개최하면 건축박람회에 오는 많은 국민들과 건축사들이 만나는 건축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

2. 행사

건축최고전문가 단체의 행사인 건축사대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

- 건축자재박람회 : 참여하는 업체는 협회에서 인증서 수여와 협회마크 활용권 부여
- 전문업체정보관 : 아파트건설회사나 전문주택회사의 모델하우스, 건축사 사무소, 각종 건축전문업체관 등
- 작품전시장 : 건축사, 실내건축사, 실무전문가, 학생 등의 작품
- 세미나 및 토론회 : 건교부서 서울시 등의 건축담당 공무원과 함께하는 건축 정책에 관한 토론,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주택개발 등의 세미나와 토론회
- 교육 : 건축사, 건축사보, 건설관계인, 학생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건축 및 주택상담 : 건축사(여성건축사 등)가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대국민 봉사와 홍보
- 전국건축사대회행사

3. 장점

- 건축최고전문가 단체인 협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명분 있고 해야 할 사업 (건축과 관련한 언론사 등도 건축박람회를 한다.)
- 건축최고전문가 단체가 주최하는 건축박람회는 명성으로 기존의 경향 하우스집매, MBC건축박람회, 기타 전일주택박람회 등과 차별화.
- 수익창출 : 수익창출 뿐 아니라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는 비용 절약
- 건축사의 인지도 향상과 위상제고 : 많은 관람객 뿐 아니라 작품전시, 건축 상담 등으로 일반인과 건축사와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는 건축 축제의 장
- 건축문화정당
- 차별화된 박람회 : 건축자재업체 등 참여업체에 효율적인 기획으로 건축 전문가들의 방문확대 시도(구매력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회) 또한 건축사지, 건축사신문 등 건축사협회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박람회의 홍보 뿐 아니라 참여업체의 자체소매, 세미나, 건축 강좌 시장 층계로 참여업체와 건축사 등에 정보제공. (김인환 / 티스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대회란

오랜만에 들어본 건축사대회!

뭔가 우리에게 돌피구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돌어대던 우리의 합성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놓고 정작 우리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정확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저 그들의 결지장에 우리들은 꼭두각사가 되어 처음부터 박수는 왜 그리고 환하게 때렸는지... 이저이! 본인이 좀 나오겠지... 환하게 두들기던 박수 소리도 서서히 힘이 빠질 때 그들은 진정 우리에게 어떤 인물이었는개 우리 건축사대회를 위하여 혼신하신 일이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요.

하나 : 건교부장관 대신 입법의원만 여러분 다수를 대신 참석

둘 : 정당대표 대신 국회건교부 위원님 다수참석

셋 : 지자체대표 대신 입법법당당관 공경위 위원회 여러분

우리는 이들 앞에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과 진정한 대한민국 의 기초적인 건설문화에서 백년대계라는 국토건설에 이르기까지 얼굴을 맞대고 신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환경건축문명에 뛰어들어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협회장님의 입장식, 나무 기나긴 시간이 할애되어 목적이 좀 힘이 빠졌지 않나 생각해 본다. (김관수 / 영지 건축사사무소)

위 글은 우리협회 홈페이지(kira.or.kr) 회원전용게시판 내용을 발췌, 함께 보는 것입니다. (편집자)

2005 전국건축사 회화전

건축가의 정서가 순수 미술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보다 좋은 건축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2005 건축가 미술동호회 정기전을 회원43명(작품 70점)이 출품하여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3A전시실(2005년 6월 24일~28일)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하에 성황리에 전시하게 되었으며, 서울 토석 갤러리(2005년 7월 6일~12일)에서 순회전을 갖게 되었다.

건축가 미술동호회는 조성렬 회장을 비롯하여 70여명의 회원이 작품 활동 및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해외 교류전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관계 및 작품 활동을 더욱 더 돈독히 할 계획이다.

건축가 미술동호회에 건축가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라며,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이 많았으면 한다. (글/이원희건축사)



김유지 / 유지 건축사사무소 김주연 / 건축사사무소 다은 서귀자 / 해초 건축사사무소
누드 올롱도 바랑소리 5월애... / 52x61



강석후 / 수원건축사사무소
자연의 흔적 / 74x61



강성익 /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왕곡리 설경 / 74x61



강성철 / 삼강 건축사사무소
여수항 / 60.6x50



강정명 / 시민 건축사사무소
청포 / 65x45.5



강정훈 / 건축사사무소 이도공간
풍경 / 74x54.9



김금진 / (주)신하 건축사사무소
풍경



김낙동 / (주)동양 건축사사무소
크로키 | / 59.4x42



김상연 / 김 건축사사무소
희망 / 70x80



김석형 / 태·음 건축사사무소
반산해변의 여름 / 36.5x26.5



김선생 / 누백 건축사사무소
봄노래 / 65x53



김연호 / 제일구조안전전문 건축사사무소
용추계곡 / 45x45.5



김용주 / C/A 종합건축사사무소
풍경



김종국 / 국영 건축사사무소
평촌리의 가을 / 40.9x31.8



김종문 / 신생 건축사사무소
반구대 가을풍경 / 40x50



민성기 / 민 건축사사무소
시과가 있는 정물 / 53x45.5



박동천 / 동원미술공사 조경부
池와 후 / 54x39



박명하 / (주)나산 건축사사무소
풍경 / 70x50



박성인 / 기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쌍암리의 이른 봄 / 72x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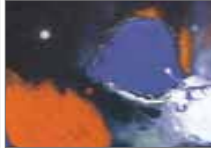
박형태 / 성일 건축사사무소
절영도 해변 / 53x45.5



서상범 / 건축사사무소 영서건축
6월의 해변 / 70x50



신기택 / (주)건축사사무소 HS그룹
뽕출산



손석진 / HENDI 건축사사무소
VOICE OF CREATION / 91x72.7



신경웅 (주)홍일 종합건축사사무소
벼릿가의 추억 / 40.9x31.8



신정철 /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이화연정



심상봉 /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산수유 풍경



양동현 /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봄소식



윤상국 / (주)觀 건축사사무소
비오는 날 / 54x73



이봉근 / (주)건축사사무소 자성
深夏(심하) / 60x70



이상운 / (주)건축사사무소 예탑
소유리 / 53x45.5



이용환 / (주)화영 건축사사무소
대흥전 / 54x74



이원희 / (주)이공 종합건축사사무소
채내바위에서 / 53x41



이천식 / 한국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낙동강 하구연 / 53x41



임정구 / 신세기 건축사사무소
살아가는 길



임별아 / 건축사사무소 건축동인
아리안 / 65x50



정명호 / (주)이건피에이 건축사사무소
그리움 / 60.5x73



정한식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환생



조성열 / 큐비 디자인 연구소
색채유희 / 100x100



한진수 / 건축사사무소 토반
그리움



차은영 / 건축사사무소 열
울릉도 기행
인권모 / 안광모 건축사사무소
울릉도 기행
기루유다의 죽음 / 31x40

2005 전국건축사대회 후원금 · 협찬금 기탁 현황

■ 회원사 <가나다순>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김중국
- (주)거성이엔지건축사사무소/이홍기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이상림
- (주)구성 건축사사무소/심구길
-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김상식
- (주)단우 건축사사무소/최명철, 이승권
- (주)동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허하구
- (주)대도 건축사사무소/이건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강철구, 이용익, 최용준, 이준규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오봉석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삼재호
-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
- (주)삼중 종합건축사사무소/이병인
- (주)서강 종합건축사사무소/김신재, 이만희
- (주)신도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박찬실
-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이갑표, 이근창, 이관표, 조익수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이중찬
- (주)유진인테리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오근석, 문 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이외구
- (주)청조 종합건축사사무소/김홍철
- (주)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한규봉
- (주)티씨엠씨 건축사사무소/송수구
- (주)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문홍길
-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강성익
- (주)한림 종합건축사사무소/오운동
-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 정영균

■ 협찬업체

- (주)포스코건설/한수양
- 현대산업개발/이방주
- LG전자/김병수
- KCC/김춘기
- (주)삼우EMC/정규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권홍사
- 대한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김종각
- 대한주택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전광수
- 동의과학대학/이충업
- 부산은행 부산은행장/심 훈
- (주)대우건설/박세흠
- (주)셀레프주법양/박길식, 위베르
- (주)제일테크노스/장명식, 나주영
- 금강공업(주)서울사무소/홍영근, 전정열
- 남홍건설(주)/박명우, 류시성
- 대명화성(주)/김구태
- 성원종합건설(주)/김중근
- (주)경동/김재진
- (주)동남엘리베이터/이만규
- (주)동아지질/최재우, 정경환
- (주)세기하이텍/배영기
- (주)유성종합건설/이수만
- 중앙방수공사/장수관
- GS건설(주)/김갑렬
- (주)무송종합엔지니어링

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

■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가. 응모작품: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17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된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회관,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술용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개축·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응모불가.

나. 응모자격: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로서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

▶ 계획건축물부문

가. 응모작품: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청사진작품

나. 응모자격:

- 일반 건축분야설계업 무증자(건축사자격소지자 제외)
-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가. 작품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집 2부

나. 건축물대장 1부

다.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소개서 1부

(외국사 참여작품의 경우 관련사실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라. 1차 사진집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상심사를 실시하며 패널 제출일은 추후 별도 통보

▶ 계획건축물부문

가. 작품주제: "재래시장"

나. 제출내용

• 1차: 작품계획안 A2(42.0cm×59.4cm)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포인 아님), 작품실명서 1부(A4 2매 이내)
* 작품계획안, 작품실명서, 원서의 제막이 동일해야 함.

• 2차: 패널(가로90cm×세로120cm) 1매 및 모형(가로×세로 75cm×90cm 또는 90cm×75cm, 높이 75cm 이내)

다.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함.

라. 응모작품의 출품자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함.

■ 작품접수

▶ 준공건축물부문

가. 일시: 2005. 7. 18.(화)~7. 19.(화) 09:00~18:00

나. 장소: 토석갤러리(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7-1번지 대도복빌 1층 - 악도는 출품원서 함조)

▶ 계획건축물부문

가. 일시: 1차(작품계획안) - 2005. 8. 1.(월) 09:00~18:00

2차(패널, 모형) - 2005. 8. 31.(수) 09:00~18:00

나. 장소: 토석갤러리

* 출품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a.or.kr)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접수할 일 제출(출품료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a.or.kr) 참조.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운영실 홍보편찬팀(Tel. 02-581-5711 ~4)

● 계획 건축물 부문 작품 주제 : 재래시장

오늘날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따도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와 건축과의 관계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래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건축의 사회적 입장에서 안타까움으로 표출되고 있다. 재래시장은 옛부터 지역 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영세상인들의 고용/회 제공과 지역경제 및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시민경제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나, 근래에 유통산업의 전면 개방과 소비 취향의 급격한 변화와 홈쇼핑 대항일 경쟁등에 젊은 고객들은 물러가고 있고, 재래시장은 중 장년층의 오랜 단골들만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재래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대중교통 및 자가용의 접근성, 주차 공간 부족, 총체적 경영의 부재 및 서비스 체계의 한계 등으로 고객의 눈에서 점차 멀어져 인터파크온 현상이 차해 있다.

최근 재래시장이 지역 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연구가 지방자치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반영한 소비행태나 기존 상인들의 재입장 장려효과와 기존 재래시장의 지역적 특성 분석이 부족한 채,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의 도로 정비 및 이케이드 설치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재래시장의 본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여건의 특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재래시장의 지역적 개발의 방향과 지역간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지 않은 채 재건축개발 위주의 정책은 일부 시행지와 지주들의 사익 이익을 대비할 뿐, 기존 영세상인과 노점상들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여 또 다른 노점을 찾아다니게 만들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건물로 집합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의 모색은 지역도시의 관점에서 재래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건물시장뿐만 아니라 노점을 포함한 가로 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적인 접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재래시장의 개발의 방향도 그 시장의 입지적 특성, 상권구조, 사회적, 문화적 접근, 기존 상인들의 지속적 영업을 고려한 개선 및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적 공공성의 건설한 토대를 꿈꾸어 본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는 전통적인 장소성의 고유한 맥락들을 해체하면서, 단지 물리적인 시장공간의 교묘한 형태에서 벗어나 도시민들에게 활기찬 만남의 장소 그리고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민들의 진정한 여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정으로서 재인식하여 새롭고 다양한 개발 기법과 제재성을 통하여 지역도시의 전통문화의 상생의 정으로서 재회하기를 젊은 건축인들의 손을 빌어 기대해본다.